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하느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평화를 빕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11년만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더 이상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함께 번영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들과 세계의 많은 이들이 감격하였습니다. 냉전의 상징인 마지막 분단국가가 드디어 화해로 나아가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 사람을 뿔 달린 괴물인 줄만 알았었는데, 이는 그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북한이 잘 되지 않기를, 남북이 화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입니다. 과거 독재세력은 장기집권을 위해 반공과 지역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세뇌시켰습니다.

복음의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자기네의 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고 그 외의 가능성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렇게 대대로 기득권을 유지해왔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마녀사냥 하듯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전

하는 하느님은 자기들의 상식, 가르침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렸다, 미친놈이라며 매장을 시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농민운동,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등 기득권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면 늘 좌익, 빨갱이 딱지를 붙여왔습니다. 색깔론, 북풍으로 두려움을 자극하고 선거에 이용해왔지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 남북이 자꾸 만나니 기존 시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4.27 회담 이후 설문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에서 신뢰로 바뀐 비율이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기득권이 만든 틀대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늘 옳지는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큰 변화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종교, 체제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박해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 교회가 권력을 등에 업으면서 엄청난 기득권이 됩니다. 힘이 생기자 비판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오로지 획일적인 것만을 강요합니다. 박해를 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래 들어 교종께서 고군분투하시지만 한국교회의 움직임은 참 미미합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일까요? 교회의 쇠신은 권한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연히 사제들부터여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논의가 많이 부족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독서에서 하느님은 사람(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십니다. “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틀 안에 가두고 있진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듯합니다. 혹은 힘으로 남을 좌지우지하는 이들 편에 서진 않는지, 제대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특히 선거철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력을 지지하진 않는지, 하느님 모상인 사람을 존중하는 이들을 지지하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不狂不及)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미쳤다는 건 욕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누이 형제 어머니가 되기 위해 기꺼이 미친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성 카리타스 손성문 사도 요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0주일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는 쇠퇴하지만 내적으로는 나날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을 수 있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437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본기도

† 하느님,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창세기 3장 9절-15절

안 내 : 주 하느님께서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라 하고 하십니다.

묵 상 : 깊은 죄의 구렁 속에서 주님께 애타게 애원하는 저희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화 답 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2독서 : 코린토 2서 4장 13절-5장 1절

안 내 : 바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고 전합니다.

묵 상 : 우리는 믿음의 영을 지니고 있기에, 믿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늘에서 영원한 거처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3장 20절-35절

강 론 : ‘하느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1-2쪽)

예물준비성가 :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창문을 열어야
시원한 공기로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비워야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담을 수 있습니다.

<침묵>

나를 열고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자신을 비워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채울 수 있고
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침묵>

텅 빈 내 안으로 오신 성체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느껴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01번 ‘은총의 샘’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48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6월 16일, 23일, 30일, 7월 7일,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함창 - 6월 11일, 18일, 25일, 7월 2일, 9일, 16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4

- 일시 : 6월 11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6월 예비신학생 모임

- 일시 : 6월 17일(주일) 12:00
- 장소 : 교구청

■ 주일학교 학부모 특강

- 주제 : “먹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배려”
- 일시 : 6월 24일(주일) 14:00~17:00
- 장소 : 교구청 대강당
- 대상 :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 준비물 : 필기도구
- 회비 : 1인 5,000원(당일 납부)
- 신청 : 6월 19일(화)까지 사목국

■ 안동교구 남북평화 정착 기원 미사

- 일시 : 6월 25일(월) 19:30
- 장소 : 안동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주관 :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

■ 제61차 청소년 성서모임

- 주제 : “너에게 맡기겠다”(사도 27.24)
- 일시 : 7월 27일(금)13:30-29일(주일)15:00
- 장소 : 문경 성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중1 ~ 고2, 선착순 110명
- 참가비 : 1인 80,000원
- 준비물 : 성경, 주일 미사 준비, 간편한 옷, 물놀이 옷, 운동화, 필기도구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10일(연중 제10주일) : 영양 본당 (견진성사)
- 6월 17일(연중 제11주일) : 풍양 농촌선교 본당
- 6월 24일(성 요한 세례자 탄생 축일) : 송현동 본당 (견진성사)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6월 18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제2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 일시 : 6월 12일(화) ~ 17일(주일)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갤러리5
- 오픈행사 : 6월 12일(화) 18:00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제49차 안동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설명회

- 일시 : 6월 30일(토) 14:00
- 대상 : 본교 진학에 관심 있는 초6-중2
- 문의 : 054-338-0530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특집>

천주교 안동교구 ‘우정의 길’



계림동성당 전장호(프란치스코) 신부

2018년 5월 28일(월). ‘복자 박상근 마티아와 깔레 강 신부의 우정의 길’ 순례를 나섰다. 다음 날인 5월 29일(화)은 교구설정 49주년이며, 한국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이다. 우리 교구 제2주보인 복자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얼마 전부터 교구 사무처장 신부님과 협의하여 안동교구 우정의 길을 순례하기로 준비하였다. 우선 교구 신부님들과 안동교구 교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대를 하였다.

15명의 신부님들과 4명의 교회사 연구원들, 안내를 맡은 가은성당 신 다니엘 형제를 포함하여, 18명이 아침 8시에 마원성지에 모였다. 마원성지에서 함께 기도를 바치고 마성면 상내리 광교선원 앞 공터에 차들을 세우고, 임도를 따라 한실성지에 올랐다. 한실교우촌은 경상북도의 사도로 불리는 깔레강(Calais, 姜, 1833-1884) 신부님이 병인박해 때 백화산을 넘어 문경과 연풍 등을 다니면서 전교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목의 중심지이다. 우리는 한실성지 순교자 묘역(서유영 바오로, 박 루치아)에서 기도를 바치고, 안동교회사 연구원인 조희열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10시에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였다. 여기서부터 내가 등산대장 역할을 하였다. 가은성당 김 아론 신부님은 사정상 하산하였으며, 17명이 뇌정산 능선을 찾아 헤매며, 길을 찾아 올랐다. 1시간 30분을 헤매다가 겨우 능선에 올라 점심을 먹었다. 늦게 올라온 3명 중, 김 요한 신부님이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다. 중요한 결정을 등산대장이 하여야 했다. 연세 든 송루시아(류한빈 신부님의 어머니) 자매님과 김 요한 신부님, 그리고 승합차를 운전하

는 교구청 고 베드로 차장님을 강제로 하산시켰다. 섭섭했던 모양이다.

뇌정산 갈림길을 만나, 백두대간 길을 따라 백화산(1,063m) 정상까지 2시간 50분이 걸렸다. 가져온 플랫폼카드를 앞에 펼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제 하산이다. 내가 그려온 우정의 길 순례 지도를 참고하여, 흰드미 삼거리에서 마원성지로 곧장 내려가면 된다. 3명의 신부님들은 먼저 내려갔고, 나머지 11명은 나와 천천히 하산하였다. 문제가 생겼다. 순례길 표시를 하기 위해 가져온 200개의 리본을 먼저 내려간 신부님들이 미리 다 사용하고, 정작 하산길에는 없었다. 긴 바위투성이 너덜길을 내려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면서 각자 알아서 내려갔다. 겨우 왼쪽 방향으로 길을 잡아 내려가다가, 누군가 표지해 둔 흰 리본을 보고 겨우 하산하였다. 벌써 몇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 미끌어지고 넘어지고 야단이였다. 큰일이다. 누군가 너덜길에서 다치면 보통일이 아니다. 가다가 쉬면서 용기를 주고, 겨우 계곡삼거리에 도착하였다. 여기서부터는 경사도 완만하고 길도 좋아 안심이 되었다. 계곡을 건너면서 세수도 하고, 발도 담그고 물도 마시고 정신이 들었다. 산 밑에까지 승합차를 올라오게 하여 타고, 마원성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저녁 6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 분 원로 신부님들께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무사히 순례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다. 큰 불상사 없이 우정의 길 순례를 마친 것을 복자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의 도움이라 믿는다.

“복자 박상근 마티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탁월한 선택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일식이’ ‘삼식이’라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집에서 하루 한 끼 먹으면 일식씨, 두 끼면 이식이, 세 끼를 꼬박 찾아먹으면 삼식놈이 된다. 한 끼도 않으면 영식님으로 대접 받는다. 중년 이후의 불편해지는 부부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재미있는 비유지만 한쪽에서는 웃을 수만도 없다.

사실 은퇴시기가 되면 갑은 여성으로 바뀌고 을이 된 남자는 대략난감한 상태가 된다. 나라고 예외겠는가. 식탁에서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번 죽은 기는 갈수록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집안의 주도권도 어느새 아내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아이들도 거의 제 엄마와 의논을 한다. 집안일에 대한 얘기를 듣다보면 결론은 미리 내려놓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섭섭하지가 않다. ‘너는 어찌다 나를 생각하지만 나는 어찌다 너를 잊는다.’는 쇠구가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우리 부부의 태도를 잘 대비한 것 같다. 그러니 더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쪽이 갑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작년 봄에 앞으로는 아침만 집에서 먹겠다고 선언을 했다. 아내가 반색을 했다. 점심은 학교서 먹고 회식이 없는 저녁은 혼밥을 하지만 전연 썩스럽지 않았다.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혼자 가도 환영받는 식당도 서너 곳 마련해두었다. 아내도 일식씨를 위해 아침 한 끼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나도 모처럼 식탁에서 위엄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내친김에 잠도 시골집에서 자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아내가 기꺼이 찬성을 했다. 삼년 전에 고향집 대신 마련한 집이다. 시내서 십여 분 거리인데 마당이 넓고 오후면 산그늘이 일찍 내려온다. 거기 가면 내가 돌아올 곳에 돌아온 안도감이 온다. 아내는 자기가 돌아올 곳은 전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철따라 한두 번 시찰 오는 정도다. 세탁기를 들여놓고 간단한 빨래는 거기서 한다. 텃밭을 가꾸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러니 의식주(衣食住)의 상당한 부분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었다. 힘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편하고 즐거울 때가 많다.

부부가 꼭 함께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떨어져서 좋은 경우도 많다. 부스스한 얼굴을 보일 염려도 없고 채널권을 다툴 일도 없다. 백세시대에 결혼기간이 마냥 길어지고 있다. 이쯤에서 생각과 관습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부부의 이름으로 빼앗은 시간들을 서로에게 돌려주자. 더 노약해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 절대 간섭하지 않기. 그보다 귀한 선물이 있겠는가.

시골집에서 자고 아침에 시내에 들어가면 아내가 손뼉을 치며 환영을 한다. 날마다 새로 만나는 기분이다. 부부가 하루에 얼굴을 마주하는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이다. 텃밭의 채소라도 들고 가는 날은 식사 대접이다. 자연 식탁의 대화도 다정할 수밖에 없다. 거의 하루의 공백기 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정화되고 언어가 절제된 결과가 아닐까. 제 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쓰게 된 흥가분한 마음이 서로를 흥가분하게 만드는 지도 모르겠다. 아내의 손맛도 야물어지고 생기가 돈다.

일식씨가 된 것은 아무래도 탁월한 선택인 것 같다.